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7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... 서비스 주도
- NYT: 연준이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
- WSJ: 주택 임대료, 인플레이 억제에 도움 된다
- WSJ Real Time Economics: 미 실질 임금 상승 --- Eris 코로나 하위변종, 미국서 늘어난다

[미국 금융]

- WSJ: 소셜 연금 내년에 상승폭 크지 않다
- WSJ: "AI 호황 이지만 닷컴 거품을 교훈 삼아야 한다"

[뉴욕시]

- Bloomberg: 감사원 "뉴욕시 2027년까지 400억불 예산 적자 예상"

[부동산]

- Bloomberg: 미 주택 시장, 최근 침체 손실 3조 달러 다시 회수

[물류]

- The Economics: 미국 물류 붐, 침체기로 돌아서다

[오일]

- CNN Business: IEA "올해 유가 상승 위험 예상된다"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Amazon "직원들 출근 단속한다"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Producer-Price Inflation Picks Up on Boost From Services

7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... 서비스 주도

- 7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주로 일부 서비스 분야의 주도로 상승했다.
- 오늘 발표된 금요일 7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는 0.3% 상승했다. 식품과 에너지 제외 핵심 물가지수도 같은 수치로 상승했다.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6월의 수치는 하향 조정되어 일부 강세가 실제 완화되었다.
- 지난 1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인플레이 압력지수가 완화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, 해외 수요 약세, 소비자 지출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한 이유가 컸다.
- 그러나 원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역풍이 다시 불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NYT: Why the Fed Might not Be Done Raising Rates**연준이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**

- 요지: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 관련 수치 이후에 일부 조심스런 낙관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경제에 새로운 압력을 줄수 있다.
- 오늘 금요일 오전 선물 시장은 인플레이 완화에 따라 다음달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. 그러나 일부 연준 관리들의 경고 처럼, 이를 확신하는 것은 너무 빠른 상황이다.
- 인플레이는 지난 1년간 하락했는데 특히 신차와 중고차, 가정용 가구 등 이른바 '핵심재' 가격이 추가 하락했다. 팬데믹 회복 덕분이고 거주 임대료 인플레이도 완화되고 있다.
-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인 Mary Daly는 "다음달 논의에서 금리 인상건을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는 더 할일이 남아 있다"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.
- 핵심은 에너지 가격.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.

NYT 기사

WSJ: Inflation and Housing Costs Are Set to Turn a Corner**주택 임대료, 인플레이 억제에 도움 된다**

-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물가 상승의 90% 이상이 주택 임대 비용(shelter)에서 비롯 되었다.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.
- 7월 전체 인플레이율은 전월 대비 0.2% 상승했다. 하지만 1년 상승률은 3.2%로, 작년 6월에 기록한 9.1%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.
- 주택 비용은 내년까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 샌프란시스코 연준에 따르면 임대료와 주택 가격에 대한 모든 종류의 민간 부문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.
- CME FedWatch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약 3분의 1이다. 현재와 같은 5.25%~5.5%의 범위가 될 확률은 약 50%이다.

WSJ 기사

WSJ Real Time Economics: 실질 임금 상승 - Eris 코로나 하위변종, 미국서 늘어난다

[실질 임금 상승]

-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었다. 그러나 최근에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. 7월 실질 평균 시간당 소득이 전월보다 0.3% 상승했고, 1년 전보다 1.1% 증가했다.

[Eris 코로나 하위변종, 미국서 늘어난다]

- 가을에 호흡기 질환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오미크론 변종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.
- 당초 코로나가 본격적이었을 때 보다는 덜 파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국인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.

[미국 금융]

WSJ: Social Security COLA Expected to Rise in 2024, but Not by a Lot 소셜 연금 내년에 상승폭 크지 않다

-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은 인플레이가 둔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-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플레이가 향후 2개월간 최근 추세대로 오늘 경우 오는 2024년에 매월 연금 수표 금액은 3%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.
- 즉 생활비 조정치(cost-of-living adjustment)로 계산할 경우 3% 상승은 은퇴자의 월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올해 1천8백37달러에서 1천8백92달러로 약 55불 상승하는 셈이다.

WSJ 기사

WSJ: AI Mania Triggers Dot-Com Bubble Flashbacks “AI 호황 이지만 닷컴 거품을 교훈 삼아야 한다”

- 닷컴 거품은 투자자들에게 기술 호황에 따른 주식 시장 랠리의 위험성을 가르쳐 준다.
- AI 호황의 중심에 있는 NVIDIA의 주가는 올해 거의 3배가 되었으며 나스닥 100은 38%, S&P 500은 16% 상승했다.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이 회사의 주식 급등은 투기 광풍에 불과하다는 것.
- Sparkline Capital의 설립자인 Kai Wu는 “AI의 엄청난 붐을 통해 투자자들이 혁신 주도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과도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WSJ 기사

[뉴욕시]**Bloomberg: NYC Faces Budget Gaps of \$40 Billion Through 2027, DiNapoli Says****감사원 “뉴욕시 2027년까지 400억불 예산 적자 예상”**

- Tom DiNapoli 뉴욕주 감사관에 따르면 뉴욕시는 치솟는 비용으로 향후 4년간 400억불의 누적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.
- 이 추정치는 뉴욕시가 예상한 198억불을 초과한 것으로, 최근 수만 명의 이민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다. 임대 지원 프로그램 확장도 도시 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.
- Eric Adams 뉴욕시장은 이민자를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25년 7월까지 약 12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.
- “우리는 재정 관리를 계속하고 예산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”이지만 “주 및 연방 파트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그의 대변인 Jonah Allon이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부동산]**Bloomberg: US Housing Market Recoups \$3 Trillion Lost in Recent Slowdown****미 주택 시장, 최근 침체 손실 3조 달러 다시 회수**

- 부동산 관련 Redfin사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부진에 따라 잃어버린 3조 달러를 미 주택시장은 되찾았다.
- 매물 부족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주택 가격의 총 가치가 사상 최대인 47조 달러를 늘었다.
-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예전에 낮은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했기에 최근 대출을 꺼리고 있다. 올해 미국 주택의 1%만이 소유권이 변경됐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이다.

Bloomberg 기사

[물류]**The Economist: America's logistics boom has turned to bust**
미국 물류 붐, 침체기로 돌아서다

- 팬데믹동안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피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해 물류 수요가 급증했다.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그당시 물류 업계 수익이 급증하여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 약 3분의 1이 증가했다.
- 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국 물류 붐이 침체기로 돌아섰다. 소비자들은 실제 경험하는 소비를 선호해 휴가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. 이러한 선호는 소매업체들이 과잉 재고를 떠안게 만들었다.
- 또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으면서 배송 물량이 줄어들었다. 물류 업계 매출은 현재 3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. 철도 및 트럭 활동을 측정하는 Cass 화물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5% 감소했다. 7월 미국 항구를 통과한 물동량은 전년 대비 14% 감소했다.
-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하락했다. 물류 데이터 제공업체인 Dat Freight & Analytics에 따르면 ‘드라이 밴(dry van)’ 운송 비용은 2022년 초에 비해 21% 낮아졌다. 드라이 밴은 상품을 도로로 운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.
- 살아남은 물류 업체들은 직원을 감원하고 있다.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38,7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. 창고 운영자는 60,800명을 감원했다. 지난 몇 년 동안 과열된 채용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감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.

The Economics 기사

[오일]

CNN Business: IEA sees risk of even higher oil prices this year IEA “올해 유가 상승 위험 예상된다”

- OPEC+ 동맹이 원유 생산 억제 정책을 유지한다면 올해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IEA가 말했다. 유가는 6월 말 이후 약 20% 급등한 바 있다.
- 올해 7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발표하고 OPEC+의 감산 목표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. IEA는 이런 감산 조치와 석유 수요 증가로 이미 매장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.
- OPEC+가 현재 생산 목표를 유지한다면 석유 재고는 올해 3분기에 하루 220만 배럴, 4분기에 120만 배럴 감소할 수 있으며 “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”고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Bloomberg: Amazon Cracks Down on Employees Who Stay Away From the Office Amazon “직원들 출근 단속한다”

- 아마존이 사무실 복귀 지침을 무시한 근로자들을 단속하고 있다.
- 최소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 근무 등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직원을 단속하는 회사는 아마존 뿐만이 아니다. IBM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.
- 또한 좁은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일주일에 이들은 반드시 출근 하라고 말했다. Chipotle와 BlackRock도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시간을 늘렸다.
-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사무실 풀타임 근무를 꺼리고 있다. McKinsey에 따르면 사무실 출근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30% 낮은 수준이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美재정적자 10개월간 2천109조..."2011년 신용등급 강등보다 위험"

2023 회계연도(2022년 10월~2023년 9월) 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2천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.

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장기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해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의 등급 강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, 그 때보다 부채 문제가 훨씬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.

9일(현지시간) 미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(CBO)은 최근 10개월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(약 2천108조원)를 기록, 전년 동기의 7천260억 달러(약 956조원) 대비 120%나 증가했다고 밝혔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_office@kocham.org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